

정책톡톡

소멸경고지수로 본 강원도의 인구소멸 실태

백 영 미·신 지 훈

033-250-1367 youngmibaek@gi.re.kr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소멸지수에 따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고위험 지역으로 전국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정기관, 군부대, 기업의 위치 여부 등에 따라 읍면동 단위 인구밀집도와 청년 유입도의 차이가 크다. 이에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소멸위기지수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소멸위기를 파악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 강원도 소멸경고지수를 개발하고, 보다 작은 행정단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소멸경고지수 계산에는 65세 미만 인구감소율, 총인구, 지역소멸지수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소멸지수에서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던 54%(81개 중 44개) 읍면동 지역이 소멸 안심 또는 주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어촌보다는 농촌 지역, 접경지역보다 폐광지역의 지역소멸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소멸경고지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소멸위험 정도가 파악되고, 그에 따른 현장 맞춤형 소멸대응정책이 수립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Gi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톡톡」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기존 지역소멸지수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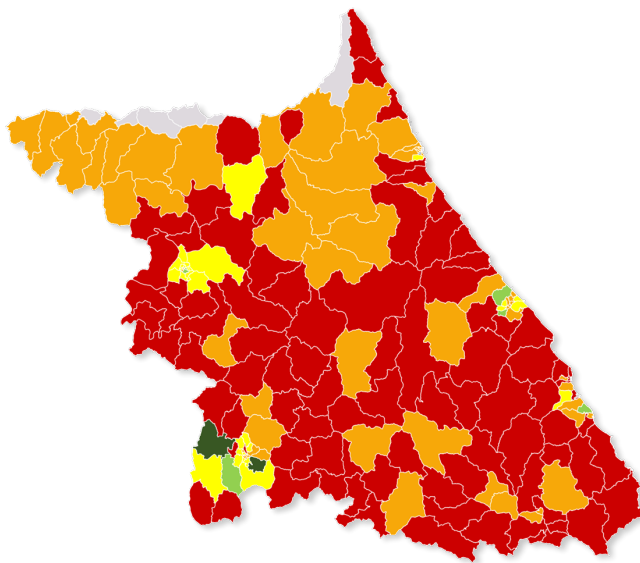
I 지역소멸지수 계산방식과 한계

● 인구변화분 미반영

- 기존 지역소멸지수는 65세 이상 노인과 20~39세 여성 인구 2개의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 (20~39세 여성 인구 ÷ 65세 이상 노인)
-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시계열 지역별 인구변화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읍면동 단위 분석에 지역소멸지수 적용의 한계

- 기존 지역소멸지수는 전체 시군의 대부분이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나타나 읍면동 단위로 위기 정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움
- 시군별 지역소멸지수로 농어촌지역의 지역소멸위기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구분	지역소멸지수
0.2 미만	소멸 고위험
0.2~0.5	소멸위험 진입
0.5~1.0	소멸위험 주의
1.0~1.5	소멸위험 보통
1.5 이상	소멸위험 낮음

<강원도 읍면동 지역소멸지수>

● 강원도 소멸위기지수 개발 필요

- 강원도의 청년인구 감소,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한, 강원도형 소멸경고 지수를 개발하고, 읍면동 단위의 실태분석 시급
- 이에 지역별 인구감소율, 가임여성비율, 65세 미만 인구 증감율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인구변화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 개발 필요



I 기존 소멸지수를 기반한 정책수립의 한계

• 시군단위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

- 시군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에 매몰되는 성향이 매우 높음
- '23년 기초단체 대응기금 7,477억 원 중 60% 미만이 집행됐으며, 기초단체 중 화천, 양양 등은 기반시설 설계에 1~2년이 소요되면서 첫째 예산 집행률이 1% 수준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 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인구감소지역 89개에 기초지원계정(7,500억 원) 95% 집중 지원
(배분방법) 기초는 지자체 자율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

• 인구 대표 유인책인 소득개선과 일자리 사업 미비

- 읍면동 단위의 소멸위기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를 늘리는 가장 큰 유인책인 지역민 소득개선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그러나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통일된 대응책이 장기간 지속
-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그에 따른 청년유출에 대응한 사업 준비 또한 미흡 (탄광지역, 접경 지역 등)

02

강원도 소멸경고지수 개발

I 지수 개발

• 계산 방식

- 기존 소멸위기지수는 65세 이상 인구를 적용해 계산했지만, 이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지역 소멸위험을 반영하는데 무리



-이에 읍면동별 총인구, 가임여성인구/65세미만 인구, 2020~2023년 65세미만 인구 4년간 인구감소율에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표 산출

● 강원도 소멸경고지수 = (A+B+C)/300

점수 구간	총인구 (A)	점수 구간	지역소멸위험지수 (B)	비율 구간	65세미만 인구감소율 (C)
1000명 이하	100	0.03 이하	100	20% 이상	100
1000~1500	90	0.03~0.05	90	17%~20%	90
1500~2000	80	0.05~0.10	80	14%~17%	80
2000~2500	70	0.10~0.15	70	11%~14%	70
2500~3000	60	0.15~0.20	60	8%~11%	60
3000~3500	50	0.20~0.25	50	5%~8%	50
3500~4000	40	0.25~0.30	40	2%~5%	40
4000~4500	30	0.30~0.35	30	0~2%	30
4500~5000	20	0.35~0.40	20	인구증가	0
5000~5500	10	0.40~0.45	10		
5500 이상	0	0.45 이상	0		

● 강원도 소멸경고지수 구분

- 0.8 이상은 심각, 0.7~0.8은 위기, 0.6~0.7 주의, 0.6 미만은 안심으로 구분
- 강원도 187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멸경고지수 분석결과, 강원도 전체 읍면동 중 심각 지역은 14개, 위기 지역은 23개, 주의 지역은 27개 (18개 지역은 접경지역 중 거주인구 부재 지역 및 면장 미실시 지역으로 제외)
- 기존 지역소멸지수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할 때, 세부지역별 소멸위기 현황을 쉽게 식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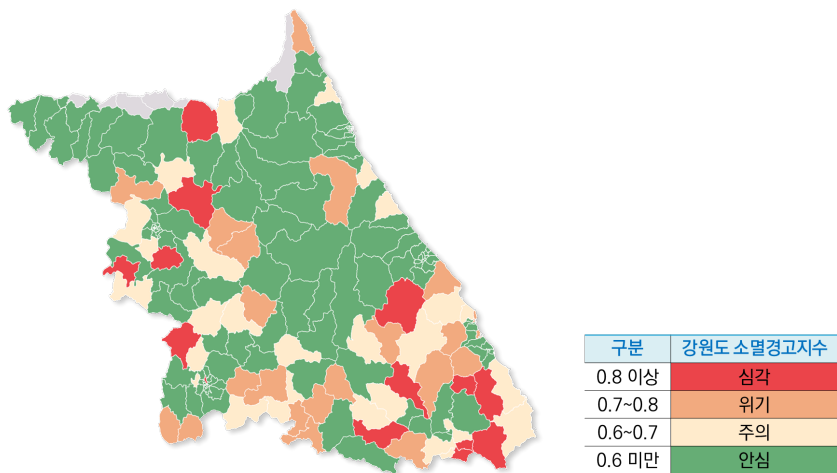
I 강원도 소멸경고지수 분석 결과

● 읍면동 단위 분석 결과

- 강원도 내 인구 5,500명 미만 읍면동 중 지역소멸위험지수에 기반한 고위험지역의 54%(81개 중 44개)가 소멸 안심 또는 주의 지역으로 분류
- 시군청 소재지, 행정기관 밀집지역, 군부대 접경지역, 핵심관광지에는 65세 미만 인구, 가임여성의 비중 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분석을 통해 드러남

• 18개 시군 읍면동 분석 결과

- 인구 20만 이상 시군 중에서도 소멸 심각 또는 위기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춘천시 4개, 강릉시 2개, 원주시 3개 읍면동이 해당
- 춘천시 남면, 동산면, 북산면, 원주시 중앙동, 강릉시 왕산면이 소멸 심각 지역으로 분류
- 이외 15개 시군 중 소멸 심각지역은 삼척시 가곡면, 노곡면, 신기면, 양구군 방산면, 영월군 산솔면, 정선군 화암면, 태백시 구문소동, 철암동, 횡성군 서원면



<읍면동 단위 강원 소멸경고 지수 분석>

시군	심각지역	위기지역	시군	심각지역	위기지역
춘천	남면, 동산면, 북산면	사북면	영월	산솔면	남면, 무릉도원면, 북면, 상동읍, 한반도면
원주	중앙동	귀래면, 부론면	인제	-	-
강릉	왕산면	강동면	정선	화암면	여량면
고성	-	현내면	태백	구문소동, 철암동	-
동해	-	목호동, 발한동, 삼화동, 송정동	평창	-	미탄면
삼척	가곡면, 노곡면, 신기면	미로면, 하장면	철원	-	-
속초	-	-	홍천	-	내촌면, 두촌면
양구	방산면	-	화천	-	-
양양	-	서면	횡성	서원면	강림면, 청일면

<강원도 18개 시군 소멸경고지수 심각 & 위기 지역>